

코로나에도 '벤처붐' 활활... 펀드 6.5兆·투자조합 206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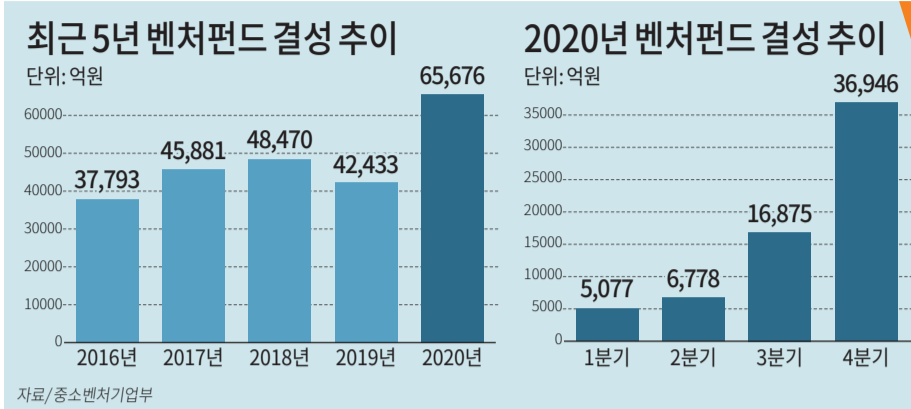
중기부 2020 벤처펀드 결성 실적
벤처펀드·투자조합 역대 최대
모태펀드,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
개인·외국인 투자는 감소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타 올랐다.

지난해 새로 결성한 벤처펀드가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 수도 지난 한 해 역대 최대인 206개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도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는 6조567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2016년 3조 7793억원, 2017년 4조5881억원을 기록한 후 2018년엔 4조8470억원까지 늘었



다. 그러다 2019년엔 4조2433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 6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 등의 결성이 본격화된 3·4분기에 1조6875억원, 4·4분기에 3조6946억원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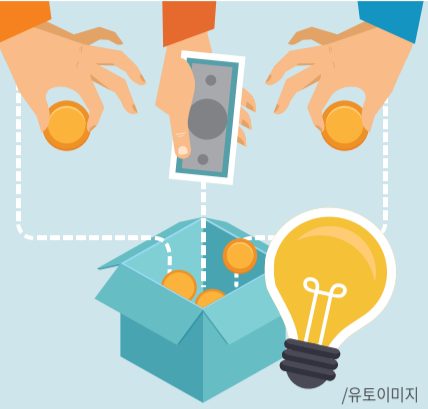
2020년 신규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부문이 2조2465억원이었고, 민간부문 출자는 4조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태펀드 등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대거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민간 출자는 정책기관 등 출자가 늘면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52%(1조 4777억원)나 늘었다.

특히 민간의 경우 2019년 당시 2740억원에 그쳤던 연금·공제회가 지난해 무려 237% 증가한 9242억원이나 출자했고 은행(1410억→2544억원), 보험(500억→1282억원), 증권(954억→



0.3%포인트(p) 줄었지만 모태펀드가 이끈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2019년(1조2431억원)보다 오히려 7729억원 늘었다.

모태펀드가 벤처투자시장에서 타 기관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신규 결성금액 기준으로 상위에는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4669억원)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3420억원) ▲LB넥스트유니콘펀드(3106억원) ▲2020 IM M 벤처펀드(2210억원) ▲케이비 스마트스케일업 펀드(200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해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이 역대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액을 달성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며 특히, 모태펀드의 비중이 줄면서도 다른 민간, 정책기관들의 출자를 대규모로 이끌어내면서 투자 여력을 확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년 특별하게” 완성車업계 감성마케팅 활발

르노삼성 새해문구·가훈 작성
현대 몸과 마음 위로 '충전포차'
기아 전시장 방문자 추천 경품 증정
쌍용 안심케어패키지 무상 제공

국내 완성차 업체가 2021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감성 마케팅을 진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새해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서예)로 새해 소망 문구나 가훈을 작성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고객들에게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고, 2021년 신축년에는 원하는 바 모두 이루기를 함께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가까운 르노삼성 전시장을 방문해 원하는 문구(30자 내외)를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문구는 화선지(70X30cm)에 전문 서예가가 작성해 표구까지 완료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는 전시장 방문 예약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전시장에서 차량 구매 상담을 받거나 원하는



현대차 온라인 충전포차 이벤트 '충전포차 AR 필터' 이미지

는 모델의 시승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고객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충전포차'를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충전포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집에서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들은 온라인 충전포차 '충전지

수 테스트', '충전포차 AR 필터'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힐링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충전지수 테스트는 몸과 마음의 충전지수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통해 충전이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현대 차 [茶]'를 추천받는 프로그램이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집중한잔·생기한잔·여유한잔·휴식한잔 등 본인에게 맞는 차를 추천받은 후 이를 SNS에 공유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차 4종이 포함된 '충전포차 토크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새해를 맞아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기아차 전시장 방문자 중 이벤트 참가 동의 소비자는 추천을 통해 삼성 더세로 TV, 페이스북 오콜러스 퀘스트, 기아차 계약금 10만원 지원 쿠폰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쌍용차는 차량 구매 고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쌍용차는 전 모델 구매조건과 무관하게 안심케어 패키지(프로바이오틱스 탈취제/각종 클리너/방향제 등)와 실시간 커넥티드 기능 지원과 첨단운전자지원기능이 지원되는 2채널 블랙박스 '아이나비 Z700'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스캐터랩, 카톡 대화 '갓허브' 공유 시인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1700개 카톡, 오픈소스 플랫폼 공개
일부 데이터 실명·지역 등 포함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카톡 대화 문장을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갓허브'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1700개의 카톡 문장이 15개월간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캐터랩은 14일 "자체 조사 결과, 개발팀이 2019년 '갓허브'에 오픈 소스로 공개한 'KG-CVAE-인공지능한국어 자연어처리(NLP) 연구 모델'에 내부 테스트 샘플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갓허브 레파지토리는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 연구에는 내부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 추출한 100건의 데이터와 개별 문장 환산시 1700건이 포함돼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대화 중 실명은 '〈NAME〉', 숫자는 '〈NUM〉'으로 자동화 비식별 처리를 했으나 기계적인 필터링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00건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20여건의 실명은 물론 지역, 직장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캐터랩은 카톡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연애 상황을 분석해주는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이 올린 카톡 데이터 100억 건을 데이터로 AI에 학습시켜 이루다를 개발했다.

스캐터랩은 "이는 한국어 자연어처리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것이었으나, 데이터 관리에 신중하지 못했고,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대화 패턴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캐터랩 전 팀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해당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사내 메신저 채널인 '슬랙'에 대해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캐터랩은 또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용자분들의 마음이 흡족하실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한진, 택배종사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

뇌심혈관 등 60개 항목 검진

한진이 연초부터 자사 택배종사자들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한진은 택배기사, 간선기사, 집배점장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출장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해 10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건강보호 조치 마련 ▲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인력 1천명 단계적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4억5000만원을 부담해 뇌심혈관 검사 등이 포함된 건강검

진을 1인당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건강검진은 병원방문이 어려운 택배기사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해 검진버스가 1월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약 1000명의 택배기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전국 100개의 한진택배 터미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항목은 뇌심혈관 검사, 혈액검사, 지질대사, 고혈압, 간 기능, 관절염 등 약 60개다.

/김승호 기자



대화형 시인 '이루다'.

“안녕 👋
난 너의 첫 AI 친구 이루다야!”
루다랑 친구하기 🤖

/핑퐁블로그